

### 내달 시행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 Q&A

# 거짓 신고땀 취득세 3배까지 과태료

6월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시행된다. 만일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 계약체결 뒤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 이중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등 엄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 체결해 오는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나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후 30일(주거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군·구·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경우 중개업소가 계약내용을 인터넷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만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매수·매도인 공동으로 직접 방문신고해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실거래가 신고 관련 계약서 등을 등기소·세무서에 송부한다. 등기신청인은 잔금청산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실거래가 신고시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거래 신고필증, 다수 필지의 토지나 여러 건축물을 거래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목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의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되나 ▲1개의 계약서에 의해 1개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한란에 거래금액이 기재된다.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에 매매목록 번호가 기재되고 매매목록이 추가된다. -허위기재시 처벌은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만일 A가 B에게 실제 15억원에 아파트를 넘기고 매매가액을 12억원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내야할 취득세 2천250만원(15억원×1.5%)의 3배에 달하는 6천750만원을 A와 B가 각각 내야 한다. (실거래금액-신고금액)/실제 거래금액이 0.1 미만이면 취득세의 1배, 0.2배 미만이면 2배, 0.2배 이상이면 3배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매수인 B는 과소신고금액(15억-12억원) 3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 또 매도인 A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과소신고세액의 10%를 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과태료가 더 많아져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보성녹차' '이천쌀' 도용하면 형사처벌

앞으로 '보성녹차', '이천쌀' 등과 같은 지리적 표시를 등록자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다. 농림부는 농식품의 지리적표시 권리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이나 특성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특정지역에서 생산됐음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등이 그 예로 지난 2001년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16개 품목이 등록을 마쳤다. 개정안은 지리적표시 등록자에게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 무단으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재정부 "집값 담합 제재 검토"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5일 "부녀회의 아파트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아파트 부녀회가 '호가 끌어올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도입하는 등의 준비를 이미 해 왔기 때문에 국내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상층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강남이나 그 주변지역이 아닌 지역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8·31 부동산대책에 담긴 공급대책의 배경을 설명한 것일 것"이라며 "강남에 대한 절대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교, 송파·거여, 잠지구에 강남에 버금가는 우량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동향과 관련, "5월 중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출이 둔화되는 모습에서 재화소비 증가세는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은 이달에도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 "韓 중소기업 경쟁력 아시아 3위" UPS아시아태평양본부... 홍콩 제쳐

아시아 중소기업들은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중국·일본에 이어 아시아 3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다국적 특송업체인 UPS 아시아태평양본부가 한국·일본·중국·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에 위치한 중소기업 대표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아시아 중소기업 대표들은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자국과 비교한 타국 기업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중국(70%), 일본(58%)에 이어 3위(55%)를 차지했다. 작년 조사에서 한국은 홍콩에 뒤진 4위였다. 한국기업들은 자국경제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우리 기업들의 50%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전망했는데, 이처럼 긍정적 답변이 절반을 넘는 나라는 인도(79%)와 중국(71%) 등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데 대해 '위협이자 혜택'(45%)이라는 의견이 '위협'(35%), '혜택'(17%)이라는 답보다 많았다. /연합뉴스

## 한중우호협회, 中 상무부 대표단 환영행사

박삼구 한중우호협회 회장(금융아시아 나그네 회장)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 부장 일행의 환영 행사를 갖고 한·중간 우호증진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측에서 보시라이 상무부 부장을 비롯한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등 10여명, 한국측에서 박삼구 회장을 비롯해 박삼구 전 국회의원, 한승주 전 외교통상부 장관, 문규영 한중경영인 협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환영사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달라진 중국의 정치·경제환경 속에서 손조롭게 적응해 활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우호협회는 양국 민간의 선린우호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설립된 단체로 한·중 양국민간의 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증시 개인비중 큰폭 감소

4개월새 11% 줄어...40%대 진입 '눈앞'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간접투자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 최근 급격한 조정장세를 맞아 투자심리가 잔뜩 움츠러들면서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의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개인의 매매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36%를 나타냈다. 올 1월 65.55%에 달했던 개인의 매매 비중은 ▲2월 59.04% ▲3월 53.07% ▲4월 54.63%에 이어 5월들어 40%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매매 비중은 각각 26.72%, 19.05%로 4월보다 3.69%포인트, 0.78%포인트씩 높아졌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1997년 금융위기 재현 우려는 기우"

### 美 금융칼럼니스트 페섹 주장

아시아 증시의 최근 조정양상은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며 지난 1997년 금융위기가 재현되리라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미국 월가의 금융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이 25일 주장했다. 페섹은 이날 블룸버그에 게재한 칼럼에서 "현재의 아시아시장은 97년 당시와 비교할 때 금융시스템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여러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일본의 성장지속은 역대 안정성을 유지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섹은 현재 신용시장 동반약세는 우려가 커질 때마다 신용시장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전세계 투자자들의 성향 때문

이라면서 따라서 투자자들의 대아시아 투자관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 당국이 취할 특별한 방책은 없다고 말했다. 페섹은 또 최근 인도증시의 급락세와 중국경제에 대한 긍정론 일색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지적했다. 인도증시의 급락세는 3개 종류의 비중이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증시의 미성숙함과 점증하는 투기적 성향의 자금 유입에 따른 취약성이 표면화된 것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 페섹은 빠른 경제성장과 금융시스템의 발전속도, 정책입안자들의 우수성 등을 감안할 때 인도증시가 곧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 건축허가면적 6.7% 증가

올 4월까지 1,090만평

올해 4월까지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동기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1~4월 건축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올해 건축허가 누적면적은 3천609만5천㎡(1천90만평)로 작년 같은기간(3천383만4천㎡·1천20만평)에 비해 소폭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9% 감소한 반면 지방은 20.9%가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9.4%, 공업용이 21.8%, 교육·사회용이 2.1% 각각 확대된데 반

해, 상업용은 10.1%가 줄어 대조를 보였다. 1~4월 착공실적은 2천208만7천㎡(668만평)로 11.7%가 감소했는데 이는 지방의 증가폭(10.1%)보다 수도권 감소폭(-31.9%)이 컸기 때문이다. 용도별로는 공업용(12.1%)을 제외하고 주거용(-22.4%), 상업용(-17%), 교육·사회용(-14.2%)이 모두 마이너스였다. 한편 4월 한달간 건축허가면적은 924만7천㎡(279만평)로 1년전에 비해 8.2%, 착공면적은 762만㎡(230만평)로 20.7% 각각 감소해 최근 건축경기의 위축을 반영했다. /연합뉴스

### "기아자동차 사주세요"

「범시민 기업사랑·지역제품 사주기 운동」 기아차 구매협약 체결 및 동참 호소문 발표식

광주시·광주상공회의소·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등 광주기업사랑협의회 20개 기관단체가 25일 기아차 광주공장 이전관에서 '기아차 구매협약 체결 및 동참호소문'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참여한 20개 기관단체와 일반시민들이 177대 구매협약서를 작성, 기아차 조남홍 사장에게 전달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안성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조남홍 기아차 사장, 안희회 광주 YWCA 사무총장, 정남준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도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직무대행.

20개 기관·단체 177대 구매협약

이날 참여한 20개 기관단체와 일반시민들이 177대 구매협약서를 작성, 기아차 조남홍 사장에게 전달했다.

## 1분기 해외 신용카드 10억弗 썼다

작년 동기 비해 32.4% 급증...사상 최대

환율하락과 함께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1·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10억달러를 돌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에 따르면 1~3월 거주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해외사용금액은 10억5천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2.4%나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1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주자의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은 2004년 1·4분기에 6억2천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9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급증한 것은 작년 1·4분기에 평균 1천22.5원

이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 1·4분기에 977.5원으로 급락한데다 주5일근무제와 겨울방학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급증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4분기 내국인 출국자는 275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2% 늘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140만명)의 2배 수준에 달했다. 1인당 신용카드 해외사용금액도 656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8.3% 늘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세 명	모 집 분 야	자격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S&P환경기술	개발업무(CAD/인벤터-설계가능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7	062-602-7505
대창 E&T	주유소 업무 관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7	062-383-6831
남해종합개발	신원설비(냉동창고)현장 기계설비 기술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8	062-220-2514
굿모닝빛고을	[코디(테)주] 사무/총무 및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8	062-374-9454
비비트	정규직 전산관리 경력사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5/28	062-650-2205
웅진테크	경주시내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보조강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515-0195
케이즈	정규직 TM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31	062-236-1688
한국공업엔지니어링	2006년 정규직 비파괴검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31	062-369-0790
신일가스	경리, 사무보조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31	062-951-0011
글로벌	글로벌경영 광주TM지점 텔레마케터 27명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6/01	062-350-3762
뉴에이스주식회사	삼성전자 하절기 고객센터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05	031-267-1862
GM대우자동차판매	2006 정규직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3,000~3,200	06/08	062-942-923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